

美 금리인상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

한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대출 수요 '풍선효과'
DSR 34.2% 전년비 3.5%p ↑

"기업 차입금리 1.5% 오르면
'좀비기업' 4.6%p ↑"

"美 금리 인상 충격 발생
韓 감내할 복원력 괜찮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의 급증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141조2000억원)나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2014년 평균(6.9%)을 크게 상회한데다 이례적인 급증세를 보였던 2015년(10.9%)보다도 높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금융부채 가구, 소득의 3분의 1 원리금 상환에 사용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비은행권과 신용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지난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34.2%로 전년(30.7%) 대비 3.5%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은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0%) 비중이 65.5%, 고신용(1~3등급) 비중이 65.7%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 부채의 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모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부채 액수도 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해 말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이하) 차주의 대출 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6.2%를 차지했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이 100%보다 높은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은 2015년 5.7%에서 2016년 7.0%로 상승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기를 맞아 국내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취약 계층이 채무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 차주는 은행권에 비해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서 취약한 계층"이라며 "상호금융 대출이 올해

들어 증가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철강·조선 등 취약 업종 부실기 압도 위험 요인

한은은 또 대우조선 해양 등 취약 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가 크고 우리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해양·철강업 등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기업의 차입 금리가 150bp(1.5%)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지도 감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좀비기업) 비율이 전체의 28.8%에서 33.4%로 4.6%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에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최근 5년 평균(31.4%)을 크게 넘어서

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철강업(+8.6%포인트), 조선업(+8.9%포인트) 등 취약 업종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크게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문제로 리스크가 다소 커졌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고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 건전성도 양호해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액 규모,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3사 재승인

방통위, 합격 기준 미달 TV조선은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합격 기준을 넘지 못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선방송(TV조선), Jtc, 채널A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TV조선 2017년 4월1일~2020년 4월 21일 ▲Jtc 2017년 4월1일~2020년 11월30일 ▲채널A 2017년 4월22일~2020년 4월21일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

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심사됐다.

Jtc와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 661.91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반면, TV조선은 총점 625.13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한 차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한다.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뉴시스

삼전, 갤럭시7 배터리 충전을 0%로 제한

삼성전자가 오는 29일(뉴욕, 런던 현지시간) 갤럭시S8 공개 행사를 앞두고 28일부터 갤럭시노트7 충전율을 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 노트7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항공기 탑승 규제 등 제한 조치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제외한 노트7 출시 전 국가에서 배터리 충전을 0%

로 제한하거나, 통신 네트워크 차단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4월 1일부터 갤럭시 노트7을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환불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5개월 이상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을 진행해왔다"며 "현재까지 국내 갤럭시 노트7 구매 고객의 97%가 교환·환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중진공, 기업진단 우수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진단 후 지원성고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기업진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조직관리 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받고 사내 안정화를 도모한 사례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핵심인재 관리 용도나 소득 수준에서 취약하게 사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사례집에는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인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현장사진도 소개됐다.

박홍주 기업진단 처장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의 개선로드맵 이행과 맞춤형 연계지원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기업의 소중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신청 288-9700

벅스, 'NHN벅스' 로 사명변경

벅스가 '엔에이치엔벅스(NHN BUGS)'로 사명을 변경한다.

NHN벅스는 지난 24일 판교 글로벌 R&D(기술개발) 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NHN벅스는 "NHN엔터테인먼트와 협력으로 급변하는 음악 시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NHN벅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음악 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13.5% ↑

주택담보대출 17.0%나 늘어... 高LTV 비중 66%

지난해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자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2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다. 은행(9.6%)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17.0%(14조1000억원)나 늘었다.

또 비주택담보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 토지 구입 등을 위한 차입이 늘면서 12.5%(17조1000억원)나 확대됐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이 은행보다 훨씬 높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LTV가 60%를 넘는 '고(高) LTV' 비중이 35.9%였지만 상호금융은 66.4%나 됐다.

또 상호금융 비주택담보의 경우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59%에 달해 위험도가 높기로 지적됐다.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일반적으로 2금융권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 차주는 은행권에 비해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서 취약하게 사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